제3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최종심사결과

시상내역	분야	작품명	이름	전화번호
대상	중편소설	업어줄게	김재완	010-9867-****
문예특별상	중편소설	여름의 대삼각형	장예지	010-9747-****
최우수상	시	오월의 기분	김애숙	010-3602-****
우수상	동시	달콤젤리 뱃살	박선영	010-5662-****
우수상	시	갯벌1	이석재	010-8735-****
우수상	동화	호루라기 속의 새	이진영	010-9985-****
우수상	중편소설	애곶	조요섭	010-6768-****
장려상	동시	나무가 할 수 있는 일	강예린	010-5591-****
장려상	시	시로 푸는 해답	조명희	010-3723-****
장려상	시	식물과 대화법	김권곤	010-8925-****
장려상	시	존엄한 폐업	한승완	010-4334-****
장려상	단편소설	백만송이 장미가 필때면	김한석	010-2997-****
장려상	단편소설	비행하는 마음	김선희	010-3538-****
장려상	수필	보이지 않는 끈	김교환	010-8120-****
장려상	수필	나의 사이배슬론 출정기	김홍기	010-2334-****
장려상	장편소설	나와 너	나향은	010-2996-****
장려상	중편소설	난희의 헬스키퍼 일기	장근영	010-4343-****

□ 심사위원

성 명	주요경력	비 고
고정욱	• 작가 (주요저서『가방 들어주는 아이』(사계절), 『꿀벌이 사라진 날』(한솔수북) 등) • 2025 린드그렌상(ALMA)' 한국대표 후보, 2021 장애인고용촉진 유공자대상 수상 등 • 국제장애인연맹 이사, 상애복지포럼 총무	
박소란	• 시인 (주요저서 『수옥』(창비), 『있다』(현대문학) 등) • 2025 현대문학상 수상, 2024 동국문학상 수상, 2020 노작문학상 수상 등 • 동국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강사	
성해나	• 작가 (주요저서 『혼모노』(창비), 『인비인』(한겨레출판) 등) • 2025 신동엽문학상 수상, 2025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수상, 2025 젊은 작가상 수상 등 • 2024 창비신인소설상 심사위원, 제17회 한겨레21 손바닥문학상 심사위원	
이승하	• 시인 (주요저서 『뼈아픈 별을 찾아서』(시와시학사) 등) • 2022 황순원 문학연구상 수상, 2020 유심작품상 수상, 2019 편운문학상 수상 등 • 중앙대학교 문예창작학과 교수, 국제PEN 한국본부 이사	
허희	• 문학평론가 (주요저서『얽힘의 사건』(작가),『희미한 희망의 나날들』(추수밭) 등) • 2012 제6회 『세계의문학』 평론 부문 신인상 수상 • 성균관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일반대학원 한국현대문학 박사 졸업, 강남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 초빙교수	

□ 심사평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은 장애를 특정 소재나 개인적 체험의 테두리에 가두지 않고, 상이한 몸과 감각, 관계와 제도가 인간의 삶을 어떻게 빚어내는지를 다채로운 문학 언어로 새롭게 드러내는 장이다. 그러한 면에서 장애인문학의 의의는 장애를 '극복' 하거나 '감동' 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데 있지 않다. 세상의 익숙한 기준을 의문에 부치고, 누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말할 수 있는지, 돌봄의 입체적인 메커니즘 등을 다시 살피게 한다는 데 있다. 이는 다수가 중심이라 믿어온 문학의 좌표를 재설정하는 기획이기도 하다. 올해 본심에 오른 작품들은 시· 동시· 동화·소설 장르 등을 통해 장애를 결핍의 표지가 아니라 삶을 통과하는 구체적인 면면으로 전환했다.

우수상 「달콤젤리 뱃살」은 아이가 자기 뱃살을 위로의 표지로서 아픔을 보듬고 친구와 웃음을 나누게 하는 친밀한 신체로 받아들이는 동시이다. '빼야 할 것' 이라는 어른의 시선과 달리, 아이의 '달콤젤리 뱃살' 은 다층적인 관계망이 얽힌 상징으로 화한다. 친숙한 어휘와 명랑한 리듬에 몸을 바라보는 상반된 시선을 자연스럽게 담아낸 점이 돋보였다. 「갯벌 1」은 갯벌을 상처 입은 야생의 짐승으로 형상화하고, 그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생을 밀물과 썰물의 도돌이표 위에 세운다. 비슷한 이미지가 겹겹이 밀려드는 대목이 지나친 반복으로 지적되기도 했으나, 가난과 노동—거친 생존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힘이 강했다.

「호루라기 속의 새」는 상실과 공포를 겪은 아이가 마법의 파랑새와 우정을 맺고, 마침내 사랑하기에 놓아주는 법을 배우는 동화이다. 사건과 설정이 헐거운 면이 없지 않으나, 애도와 보호, 그리고 자유의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상상력으로 풀어낸 따뜻함이 오래 남았다. 「애곶」은 포경 마을을 배경으로 한센병을 앓았던 최 포수, 농인 무녀, 전쟁과 강제수용의 과거를 한데 엮으면서 '들어온 자' 와 '내몰린 자' 가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자신의 자리를 얻는지 탐색한다. 역사적 공간을 구축하는 솜씨와 서사의 규모가 방대하여, 산문 부문의 최우수상을 두고 「여름의 대삼각형」과 마지막까지 치열한 논전이 이어졌다. 분명한 장점이 있는 작품이지만 여러 비밀과 반전이 한꺼번에 회수되고 종결부의 의미가 직접적으로 제시되면서, 인물과 세계가 남길 수 있는 여백이 좁아졌다는 의견이 우세하여 우수상으로 뜻을 모았다.

최우수상 「오월의 기분」은 비지와 묵은지의 새큼한 냄새에서 출발해 초록과 갈색, 슬픔과 기쁨이 스며드는 내면의 계절 풍경을 섬세하게 전개한다. '깨진 사랑도 초록' 이라는 통찰은 상처를 성급히 봉합하거나 회복의 서사로 환원하지 않으면서도, 부서진 곳에서 희망을 포착하는 반전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초록의 되풀이가 관념보다는 정서의 농도를 조금씩 바꾸어 가는 리듬으로 기능한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한 편의 최우수상 「여름의 대삼각형」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민하를 중심으로, 솔과 은강의 사랑과 우정 사이의 에피소드를 세 별이 이루는 삼각형에 겹쳐 놓는다.

이 작품의 성취는 장애인을 타인의 배려에 의해서만 규정되는 수동적 캐릭터가 아닌, 사랑하고 혹은 사랑을 거절하면서 관계의 거리를 스스로 조율하는 능동적 주체로 그렸다는 데 있다. 대학의 문턱을 비롯하여 민하가 다니는 경로, 수미상관을 이루는 부케 주고받기와 같은 장면들이 인물들의 성장과 긴밀하게 맞물리고, 세 사람의 우정과 사랑이 변해 가는 과정을 너무 미화하지 않으면서도 애틋하게 완결했다. 다만 몇몇 직설적인 자기 해설이 아쉬움으로 거론되고,

「애곶」의 장대한 역사성과 이 작품의 집중된 현재성에 대한 논의가 팽팽하게 줄다리기하던 끝에 인물의 시선과 상징, 서사 구조가 더 유기적으로 결합해 있다는 점에서 「여름의 대삼각형」을 최우수상 수상작으로 낙점했다.

대상 「업어줄게」는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선정되었다. 소아마비로 휠체어를 타고 도장을 새겨온 민호가 알츠하이머를 앓는 어머니를 돌보는 이야기에서, 이 작품은 돌봄의 행위와 가치를 오래 숙고하게 한다. 높이를 낮춘 작업대와 싱크대, 어머니가 만든 비뚠 경사로, 새로 단 손잡이 등은 한 사람의 몸에 맞추어 세계를 알맞게 고쳐 가는 일이 곧 돌봄임을 예증한다. 이름을 새겨 남기는 직업과 추억을 잃어가는 어머니의 시간이 맞물리면서 기억을 둘러싼 함의 또한 깊어진다. 민호는 어머니를 업거나 쓰러진 몸을 일으킬 수 없지만, 대신 도움을 요청하고 하루하루 돌봄 기록을 남기면서 소중한 이의 곁을 지킨다.

‘업기’로는 건널 수 없던 한 뼘을 ‘안기’로 건너가는 장면은 이 작품이 품은 윤리와 미학의 절정이다. 형의 발언을 악의로만 치부하지 않고 재가 돌봄과 시설 입소 간의 난제를 열어둔 점, 석분과 인장 및 손과 경사로의 모티프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교하게 끌고 간 필력, 감정을 과장하지 않는 절제된 문장도 심사위원들에게 큰 신뢰를 주었다. 이처럼 이번 수상작들은 누군가를 업어주거나 업히는 데서 멈추지 않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닦고 상호 연결되는 접점을 마련했다. 올해 36회를 맞이한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이 거둔 복된 성취이다. 서로 다른 몸—삶의 차이를 지우지 않으면서도 공통성을 창출하는 장을 연 수상작(가)들이 한국문학의 빛나는 성좌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2026. 08. 27.

제36회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 심사위원장 허 희

□ 향후일정

ㅇ **시상식 및 출판기념회**

- 일 시 : 2026.09.02.(수) 15:00
- 장 소 : 온드림 소사이어티(서울 중구 명동길 73, 1층)
  *자세한 일정은 개별 안내 예정
- 대 상 : 대상, 문예특별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 향후 일정에 따라 변동 가능

□ 문의처

- 대한민국장애인문학상・미술대전 담당자 02-6351-5902